

#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에 대한 언어치료전문가들의 견해

하지완<sup>a</sup> · 이은주<sup>b,§</sup>

<sup>a</sup>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sup>b</sup>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 교신저자

이은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e-mail: slplee@dankook.ac.kr  
tel.: 031-8005-3818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이하 P-FA)에 대한 언어치료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을 분석한 것이다. **방법:** 유창성장애 전문가 6인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전사한 모든 면담내용을 텍스트 문서로 전환한 후 Nvivo 2 (2002)를 사용하여 질적 분석을 하였다. **결과:** 분석결과는 'P-FA를 환영하다', 'P-FA에게 바란다', '서로 다른 곳을 보다', 'P-FA를 넘어 말더듬을 만나다'의 4개 주제로 정리되었다. 각 주제의 하위주제들을 살펴보면, 'P-FA를 환영하다'에서는 시간단축과 편리함, 유창성 외 영역의 정보 제공, 깊이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표준화검사 환영이, 'P-FA에게 바란다'에서는 채점 및 해석 방법 보완, 과제와 자료의 보완, 전반적 판단과 일치기, '서로 다른 곳을 보다'에서는 선별검사의 역할 요구, 심화된 검사의 역할 요구, 그리고 과제의 목적에 대한 견해차가, 'P-FA를 넘어 말더듬을 만나다'에서는 샘플의 대표성 문제, 훈련과 경험의 필요성, 무엇이 말더듬인가?, 표준화 검사의 한계, 그리고 핸드캡 파악이 각각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들은 추후 P-FA를 개정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공할 것이며,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더욱 유용한 유창성장애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363-379.

**핵심어:**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 질적연구, Nvivo

## I. 서론

유창성장애는 행동(behavioral), 정서(affective), 그리고 인지적(cognitive) 특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장애이다. 다양한 비유창성과 부수행동을 포함하는 외현적 행동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유창성장애의 심층 구조를 형성하는 정서와 인지적 특성은 말을 더듬는 개인의 특성과 경험에 따라 변화되어 간다. 때문에 유창성장애의 평가는 변이성(variability)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현적 행동과 내면적 특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Manning, 2001).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이하 P-FA)』(심현섭 · 신문자 · 이은주, 2004)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표준화 과정을

거쳐 출판된 후 연구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창성장애 검사도구이다. P-FA는 외현적 행동을 평가하는 구어검사와 내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사소통태도평가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 청소년 이상으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검사과제와 자료를 개발하였다. 유창성장애의 변이성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다섯 가지 과제를 포함시켰다.

유창성장애에서 나타나는 외현적 행동을 평가하는 검사방법은 크게 전반적 중증도를 평정척도로 평가하는 방법과 비유창성이 발생할 때마다 측정하여 전체적인 중증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비유창성의 측정 방법 역시 단순히 비유창성의 출현 빈도만을 헤아리는 방법부터, 비유창성의 유형을 정상적인 유형과 비정상적인 유형(말더듬)으로

\* 본 연구에 참여해주신 여섯 분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누어 비정상적 유형만을 파악하는 방법(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s for children and adults; SSI, 이하 SSI), 비유창성의 유형과 길이, 긴장 유무 등에 따라 점수를 세분화하는 방법(Systematic Disfluency Analysis: SDA, 이하 SDA)까지 매우 다양하다(Campbell & Hill, 1993; O'Brian et al., 2004; O'Brian, Packman & Onslow, 2004; Riley, 1994; Rousseau et al., 2008).

각각의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P-FA 개발과정에는 대표적인 검사도구인 SSI와 SDA를 사용한 기초 연구가 포함되었다. 말더듬 성인과 아동의 평가장면을 SSI와 SDA로 평가하였을 때 두 검사도구의 결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낮아서 SDA와 같은 복잡한 분석방법은 검사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현섭 · 신문자 · 이은주, 2002). SSI의 경우에는 각각 전체 점수의 1/3씩을 차지하는 부수행동과 지속시간의 경우 판단의 일치도가 심각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심현섭 · 이은주, 2002). 따라서 P-FA는 SSI와 SDA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비유창성 유형 구분은 간소화하고 비유창성 길이 측정을 제외하여, 비유창성 유형을 정상 비유창성(normal disfluencies: ND, 이하 ND)과 비정상비유창성(abnormal disfluencies: AD, 이하 AD)으로 나누고 AD에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점수산출방식을 결정하였다.

부수행동은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큰 비중은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내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소통태도검사를 개발하여 포함시켰으나, 개인에 따라 말더듬 문제의 전체적인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늘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Zebrowski & Kelly, 2002).

P-FA의 표준화 과정에서는 P-FA에 포함된 각 과제마다 말더듬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여 과제들이 유창성장애 검사도구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개발 당시 규준 개발에 참여한 말더듬 아동 및 성인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P-FA의 사용이 연구나 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완할 점은 어떤 것인지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개정에 앞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과정이나 임상에서 P-FA를 사용한 경험이 많은 언어치료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P-FA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의견을 직접 면담 방식의 질적연구 과정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창성장애 분야의 질적연구의 중요성은 Tetnowski & Damico (2001)가 강조한 바 있다. Tetnowski & Damico (2001)는 말더듬 집단은 매우 이질적인(heterogeneous)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분석하는 것은 말더듬는 사람들의 특성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기존의 실험연구와 더불어 질적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유창성장애 분야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언어병리학 분야 이외에 질적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들에서는 근래에 들어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평가하고 개정하는 과정에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Carignan et al., 2008; Gilgun, 2004). Gilgun (2004)은 치료법뿐만 아니라 검사도구에 대해서도 효율성 검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질적 연구가 병행되지 않은 임상적 검사도구의 평가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하였다.

Riley (1994)는 SSI 검사의 타당도의 문제를 검사 매뉴얼에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판 개정시까지 이러한 타당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말더듬 자체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Riley (1994)는 SSI 검사의 높은 타당도를 보장할 수 없는 이유로 말더듬의 정의에 대한 불일치와 검사 대상자의 감정 상태 등과 같은 내적 컨디션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것은, Tetnowski & Damico (2001)가 언급하였듯이, 이질적인 집단을 하나의 동일한 검사도구로 평가한 후 수치화하여 진단을 내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말더듬 전문가인 사용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검사도구의 제작 또는 개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과학과 임상의 틈을 메울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검사도구의 개정 작업은 최초 개발 작업만큼이나 신중하여야 하고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P-FA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표준화작업을 거쳐 발행된 유일한 유창성장애 평가 도구이다. 사용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작업에 반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구자들은 유창성장애 전문가를 몇 인을 선정하여 질적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개정 작업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앞으로 출간될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의 개정판의 타당

성에 근간을 이룰 것으로 판단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면담 참여자

면담 참여자는 유창성장애의 평가 및 진단과정에서 P-FA를 사용한 경험이 풍부한 언어치료전문가 6명이었다. 면담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언어병리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 4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유창성장애 아동이나 성인을 주로 치료하고 있어서 유창성장애 전문가로 판단되는 사람이었다. 면담 참여자 중 SLP 2와 SLP 5는 본 연구 진행시에는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지 않았지만, 임상현장에서 일할 당시 유창성장애를 주로 다루었고 유창성장애 강의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더듬 아동과 성인을 접하고 있으므로 P-FA에 매우 익숙한 유창성장애 전문가로 판단되어 면담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유창성장애 전문 치료사로 판단하는 데에 있어 언어치료사 경력보다는 유창성장애 대상자를 평가하거나 치료한 경험을 기준으로 하였다. 모든 면담 참여자는 본인의 석사 혹은 박사 학위논문의 대상자를 평가할 때 P-FA를 사용하였거나, 본인이 치료해온 유창성장애 대상자 수가 전체 치료 대상자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였고, 유창성 평가를 한 달에 최소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 경험이 있었다. 면담 대상자 6명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 1>과 같다.

### 2. 자료수집 절차

#### 가. 면담 질문지 작성

면담에 필요한 질문 목록을 개발하기 위하여, (1) 문헌연구를 통해 유창성장애의 진단과 관련된 영역에서 시행된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2) 2003년부터 2008년까지 P-FA의 표준화 및 재규준화 연구에 참여하였던 조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번과 (2)번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연구자가 질문목록을 작성한 후, 면담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은 유창성장애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얻어 질문 목록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최종 질문지는 기본 정보에 관한 질문, 유창성장애 평가 과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P-FA에 관한 질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나. 면담 실시 및 자료 전사

2명의 연구자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6명의 면담 참여자들은 면담 일정 전에 미리 질문지를 배부 받았다. 연구자는 각 참여자들과 면담 일정을 정한 후 직접 만나서 개별 면담 또는 집단 면담을 진행하였다. 2인 이상의 면담 참여자가 동시에 참여한 집단 면담의 경우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동일한 발언기회를 갖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자들은 시간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면담 시간을 가졌는데,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50분이었다. 면담 내용을 대상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면담 내용은 면담 실시 후 일주일 이내에 면담을 실시한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 1> 면담 참여자에 대한 정보

이름	전문영역	언어치료사 자격증 여부	언어치료 경력 및 현 소속	면담방식
SLP1	유창성장애 및 아동언어장애	1급 자격증	6년/치료교육연구소	개별면담
SLP2	유창성장애	1급 자격증	4년/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중	집단면담
SLP3	유창성장애	1급 자격증	8년/언어치료교육원	개별면담
SLP4	유창성장애	1급 시험 합격	5년/언어임상연구소	개별면담
SLP5	유창성장애	1급 자격증	7년/언어치료학과 교수	집단면담
SLP6	유창성장애	1급 자격증	9년/언어임상연구소	개별면담

#### 다. 자료 입력 및 분석

지난 20년간 질적 자료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다. 그 가운데 Thomas Richards와 Lyn Richards에 의해 개발된 Nvivo는 대표적인 색인근거체계(index-based approach) 프로그램으로, 텍스트 코딩과 검색기능을 가지고 있어 질적 연구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김영천·김진희, 2008). 방대하고 무질서한 인터뷰 자료를 Nvivo를 통해 관리, 분석하는 것은 시간의 절약과 편리함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 수 있다(박종원, 2004). 또한 Nvivo를 질적 연구에 사용함으로써 각 연구자의 연구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연구 종료시까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설명할 수 없었던 종전의 질적 연구 수행과정의 한계(Kvale, 1994)를 극복하여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다(박종원, 2004). 본 연구에서는 전사한 모든 자료를 텍스트 문서로 전환하여 Nvivo 2 (200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6인의 면담자에 대한 모든 인터뷰 자료는 2,226 단락(paragraph)의 Nvivo 문서로 전환되었다.

코딩된 자료를 Nvivo의 노트기능을 이용하여 상위범주에서 하위범주로 또는 하위범주에서 상위범주로 나무모양의 구조(tree structure)로 계층화하였다. 최종적인 트리는 가장 근간이 되는 중심 개념이 위에 제시되며 거기에서 파생된 하위 개념들이 트리의 아래에 제시된다(김영천·김진희, 2008). 따라서 최종 트리에 나타난 상위 노트를 본 연구 결과 도출된 대주제(theme)로, 하위 노트를 하위주제로 도출하였다. 6인의 면담자에 대한 각 인터뷰 자료의 평균 코딩 횟수는 35.7(범위: 24~48)회였다. 두 저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인터뷰자료를 질적 분석한 후, 토의를 통해 의견의 일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쳤다.

#### 라. 자료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노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적 분석 방법과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두 명의 연구자들이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독립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차후에 비교하여 수정함으로써 단일 관점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배제하였다. 둘째, 면담참여자들이 면담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분석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질적 분석이 끝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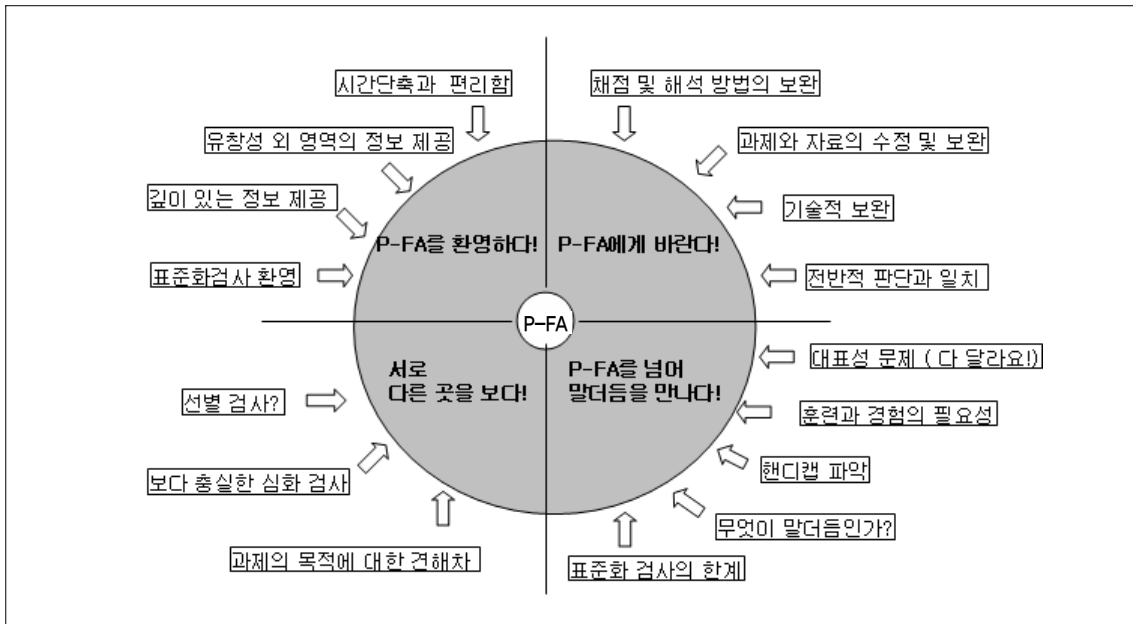
그 결과를 요약하여 2명의 면담 대상자들에게 추후 확인(member check)을 실시하였다. 추후확인 결과 2명의 면담 대상자 모두 부적절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 Ⅲ. 연구 결과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Nvivo의 코딩 과정을 거쳐 분석한 결과, P-FA에 대한 면담 대상자들의 의견을 ‘P-FA를 환영하다!’, ‘P-FA에게 바란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다’, ‘P-FA를 넘어 말더듬을 만나다’의 4개 주제로 정리할 수 있었다. ‘P-FA를 환영하다!’는 P-FA에 대한 만족스러운 측면으로, (1) 검사실시 시간 단축과 사용의 편리함, (2) 유창성 외의 영역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도구라는 점, (3) 유창성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제공, (4) 유창성장애 표준화검사에 대한 환영과 같은 하위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P-FA에게 바란다!’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으로, (1) 채점 및 해석 방법의 보완, (2) 과제와 자료(material)의 수정 및 보완, (3) 도구의 기술적 보완, (4) 전반적 판단과의 일치와 같은 하위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서로 다른 곳을 보다!’는 검사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소통 문제로, (1) 선별검사 역할 기대, (2) 보다 충실한 심화 검사 역할 기대, (3) 과제의 목적에 대한 견해 차이의 하위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P-FA를 넘어 말더듬을 만나다!’는 P-FA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는 말더듬 본연의 오랜 이슈로, (1) 샘플의 대표성 문제, (2) 훈련과 경험의 필요성, (3) 무엇이 말더듬인가, (4) 표준화 검사의 한계, (5) 핸디캡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같은 하위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대주제와 하위주제들 간의 관계를 <그림 - 1>로 도식화하였다.

#### 1. P-FA를 환영하다!

‘P-FA를 환영하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측면으로, (1) 검사실시 시간 단축과 사용의 편리함, (2) 유창성 외의 영역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도구라는 점, (3) 깊이 있는 정보 제공, (4) 유창성장애 표준화검사에 대한 환영과 같은 하위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 1> 대주제와 하위주제들 간의 관계

### 가. 시간단축과 편리함

전문가들은 P-FA의 장점으로 이전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P-FA 검사는 일단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검사의 형식적인 면에서 통일이 되었고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단축이 되었다 라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SLP2 42~44<sup>1)</sup>).

저는 그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다른 언어검사보다. PRES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P-FA는 빨리 하면 10분이면 되거든요(SLP4 151~152).

P-FA가 나오면서부터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아주 협조를 안 하는 애들 빼고는 P-FA 다 하는데 한 15분 정도? 그 정도면 되잖아요. P-FA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부담이 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면담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SLP5 59~61).

또한 전문가들은 P-FA에 익숙해지면서 이전에 비해 유창성장에 검사가 매우 쉽고 편해졌다고 답하였다.

처음에는 뭔가 번잡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넘겼다가, 넣어다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편하다, 고깃만 시키는 대로 딱 하면 점수가 나오니까 편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SLP2 80~82).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도구죠(웃음). 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커요(SLP5 268~269).

### 나. 유창성 외 영역에 대한 정보 제공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과제를 통해 다양한 언어적 부담과 상황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과 유창성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또 다른 장점으로 들었다.

P-FA는 여러 가지 과제랑 여러 가지 상황을 줬기 때문에 꼭 유창성뿐만 아니라 (이제) 스크리닝 정도로 language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Naming 안 되는 아이들도 걸러질 수도 있고, 따라 말하기 과제에서 점점 길이가 길어지면 점점 어려워하는 아이들 보면서 인지적인 측면이 의심되기도 해요. 꼭 유창성뿐만 아니라 상황별로 다양한 다른 측면에서도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SLP2 72~74).

1) Nvivo 문서의 단락을 의미함.

과제가 나눠져 있는 거는 좋아요. 과제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만 어려워하는 아이들. 이름대기 과제에서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보면서. 애가 PPVT에서는 걸리지 않았지만 phonology가 영향을 미칠까 하면서 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SLP5 241~244).

## 다. 유창성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제공

여러 과제와 상황에서 유창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유창성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나타났다.

저는 근데 과제를 여러 가지로 나눈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선택과제에서 naming하고 따라말하기 과제를 넣었잖아요, 그게 유창성 자체에 대한 문제를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내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제에 따라 보이는 유창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제별로 유창성의 특성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른들도요. 실제로 하다보면 읽기와 자발화에서 읽기에서만 말더듬을 더 많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자발화에서만 많이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과제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SLP5 225~230).

그래도 유창성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의 유창성의 유형과 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SLP6 64~65).

## 라. 표준화검사에 대한 환영

대부분의 면담 참여자들은 P-FA의 장점으로 공식적인 검사도구로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검사자간 평가 형식이 통일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공식 검사도구가 있음으로 해서 검사자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검사에 보다 확신을 갖게 되며 보호자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P-FA가 출시되기 전에는 표준화된 유창성 검사도구가 없어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따라서 검사기관과 검사자가 달라지면 서로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따랐다고도 언급하였다.

일단은 P-FA보다는 그게(SSI)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저는 SSI 사용할

때는 훨씬 더 저의 주관적인 판단을 결과에 많이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P-FA는 그것보다는 그냥 검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뭐랄까 한 세트로 다 된다는 느낌. P-FA에서는 SSI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에 검사자가 판단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알아서 체크 하게끔 했다고 할 수... (SLP3 247~262).

이런 검사도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말더듬 아동을 봤을 때 ... 실시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 자체가 장점이 아닐까. 약간 이렇게 심리적으로 저 스스로 안정이 되는 거 같아요. 어느 말더듬 인터뷰양식이나 이런 거 썼을 때는 좀 약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걸 하는 게 정말 아이들한테 이거는 정말 대표성을 가진 건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 검사도구는 출판된 거니까 조금 더 제가 실시하면서도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더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SLP1 191~198).

## 2. P-FA에게 바란다

### 가. 채점 및 해석 방법의 보완

전문가들은 P-FA에서 구한 빈도 점수, 부수행동 정도, 의사소통태도 점수 등을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SSI에서는 말하기 점수랑 길이 점수랑 부수행동 점수를 세 가지를 합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내는 거고 P-FA에서는 결국 말하기 점수만 들어가게 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P-FA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것들을 잘 해석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SSI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 표현이 되어있어서 점수를 참고하면 되는 거고. P-FA에서는 부수행동을 보긴 하지만 rating으로 되어있어서 참고로만 보는 거고, 의사소통태도도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을 따로 고려해야하는 거고. 유창성에 좀 더 초점을 뒀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빈도 점수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이외의 것들을 따로 또 별도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 그게 좀... 스코어 체계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SLP5 234~240).

1차 표준화 당시, 표본의 크기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규준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표본이 아직 너무 작잖아요. 퍼센타일이라는 정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적잖아요. 취학전 다 합해서 40명인가요? 너무 적은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어떨까 모르겠어요(SLP5 275~276).

그 검사결과를 이제 백분위점수와 뭐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런 퍼센타일이나 어떤 그런 정도를 분포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이게 신뢰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그니까 정말 이게 그 모든 말더듬 대상자를 나타내 주는 정말 그 분포도인가 어떤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을 검사해서 그 규준을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준다면 채점 이후에 해석할 때는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SLP6 112~114).

또한 현재 평정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부수행동의 규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수행동 이런 거, 느낌과 태도 이런 거. 사실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본인이 이제 체크해서 점수화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말더듬 정도만 눈여겨보게 되고 그런데요, 부수행동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꽤 심하거든요. 근데 점수분포표에 1~2점만 있어서 너무 안 그런 애들만 갖고 검사를 한 건 아닌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검사하실 때 다 체크하고 하셨을 텐데, 어린 애들은 차이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SLP3 333~337).

## 나. 과제와 자료의 수정 및 보완

전문가들은 연령에 따라 필요한 과제를 더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경우에는 놀이 상황이나 대화 과제를, 성인의 경우에는 전화하기 등의 과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언어적 부담이 증가되는 과제를 추가하면 더욱 깊이 있는 평가도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과제를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요? 연령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물 개념 설명하기, 정의하기 그런 거요. ... 언어적인 면도 같이 반영이 돼서 볼

수 있고 그거랑 더불어 유창성 면도 볼 수 있고 하는 거요(SLP2 36~40).

(취학전 아동의 경우) 대화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6~7살 정도 된 아이들이라면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꼬마애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안 될 테니까 놀이가 들어가야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입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SLP5 80~82).

3세 뭐 이렇게 아주 어린 아동이 왔을 때 P-FA를 사용할 때 보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라든가 또 뭐 따라말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취학전 아동은 이제 연령보다도 대개 더 어린 아이는 개월 수로 나누는데 취학 전 아동은 너무나 그런 차이가 없이 초등학교는 고학년과 저학년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취학 전 아동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을 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SLP6 90~94).

검사자료 중에서 특히 말하기 그림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보다 다양한 그림을 포함시키거나 아동용 그림의 크기 확대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성인들한테는 그림이 좀 더 다양했으면 하고... 여자 경우와 남자 경우 20대랑 30대랑 이야기를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 검사의 그림은 약간 중간적인 것을 채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왕에 개정을 하시면 좀 더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SLP3 290~297).

그림에 따라서 너무 나열만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취학전이면 놀이터에서 발화가 질이 더 좋아요. 성인들도 공원보다는 시장에서 발화가 더 풍부해요. 아마 상황을 추측하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추론이 되거든요. “아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요. ... 둘 중 발화를 더 풍부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림을 먼저 하게 돼요. 조금 더 이야기 상황이 들어가 있는 그림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추론이 더 들어가는 그림을 사용하게 되면... 발화가 풍부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SLP5 280~287).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그림이 이 두 가지인거 같은데요. 만약에 이거 가지고 200음절을 하라고 하신다면 좀 더 크게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림 자체도 커지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도 조금 더 많이 담겼으면 좋겠거든요(SLP1 259~261).

취학전아동의 ‘그림책’ 과제에 대해서도 연령이 어리거나 모든 그림을 이야기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림 개수를 줄여서 아동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림책, 토끼와 거북이요. 연령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의 짧은 버전 같은 게 있으면, 어떤 어떤 장면만 들어가 있는 거요, 아예. ... 그렇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고 생각을 했어요(SLP2 101~105).

P-FA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면담지에 대해서는, 면담지에 제시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족관계를 좀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면담지를 작성할 때) 성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 이런 거를 예 아니오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안 쓰거든요. 자기 상태나 그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제시해놓으면... 그 체크하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요. 말더듬는 상황도 있긴 있거든요, 상황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더 구체적으로요... 뭐가 있을까? 성인들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커버를 못 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가족관계요. 가족관계를 체크하는 난은...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오시니까 당연히 관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처자식만 체크하는데 가계력을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온가족을 체크해야하는데 결혼한 성인은 엄마, 아빠, 친척, 형제 같은 건 표시를 안 해요. 그걸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체크하는 난을 만들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온가족의 개념을 사실 잘 몰라요(SLP3 361~378).

#### 다. 기술적 보완

참여자들은 직접 임상에서 P-FA를 사용한 경험을 통해 검사, 분석 및 채점 방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비유창성의 각 유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동영상 샘플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들이 주로 나왔다.

매뉴얼 안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훈련테이프 같은 걸 같이 제작을 하셔서. 정말 시간

내서 재교육을 하면 좋겠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어요(SLP1 310~315).

결과기록지를 검사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얻을 수 있었다.

검사자가 편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웃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검사결과를 옮겨 적는 용지를 더 체계적으로 해놓으면 확실히 더 편해질 것 같기는 해요. 총음질 수 적는 칸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검사자는 거기에 옮겨적기만 해도 되게요. 그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SLP3 341~344).

검사 자료(materials)를 사용하고 보관하기 쉽게 스프링노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검사자 입장에서는 그걸 넘기는 식으로 해주시면 그게 더 편해요. ... 한 장씩 줘야 하기도 하고 보관할 때 불편한 것 같기도 해요(SLP3 297~300).

검사지까지 다 딱 스프링으로 묶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그냥 이것저것 안 꺼내고 쓸 수 있게요. 딱 묶어주었으면... 꺼낼 때도 그렇고 보관할 때도 그렇고(SLP5 280~281).

#### 라. 전반적 판단과의 일치

모든 참여자가 P-FA 결과와 주관적으로 판단한 인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이나 대상자의 중증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P-FA로 하면 general impression보다 더 심하게 나와요. 성인의 경우가 더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크게 못 느꼈던 것도 같은데, 성인의 경우는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SLP2 113~114).

심한 경우에는 general impression과 P-FA 결과상에 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감출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심하지 않은 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더 차분해지고 더 잘 말하려고 해서 좀 줄어들고요. 성인도 그래요. P-FA가 오히려 더 낮게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검사 시작합니다” 하면 조금씩 느려져요. “똑같이 하세요” 해도 대치도 많이 하고 회피도 많이 하고 해서 더 낮게 나와요 (SLP4 278~283).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음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P-FA해도 애는 심하겠구나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제 뭐 “전화할 때 힘들어요, 직장에서” 이런 성인들 같은 경우는 P-FA 할 때 완벽하게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상과 P-FA에서는 약함인데 자기는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느끼는 것과 P-FA와 일반적 인상과의 차이가 있는 거겠죠. 이진 차이가 없는데 본인이 느낄 때는 계속 답답하다고 할 때 그땐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SLP6 138~144).

### 3.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다!

검사도구의 개발자는 검사도구를 계획할 때 그 성격을 선별검사, 심화검사, 기준참조검사 혹은 준거참조검사 등으로 명확하게 한다. 또한 검사도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구인(construct)에 따라 어떤 과제와 항목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과정은 검사지침서에 기술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검사도구 사용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면담을 통해 P-FA 개발자와 사용자들 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가. 선별검사로서의 역할 요구

P-FA를 정상과 말더듬 여부를 판단하는 선별검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히 정상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P-FA의 심화검사로서의 개발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나, 임상현장에서 선별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검사가 없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선별검사에 필수적인 정상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말더듬 이외의 장애로 인해 유창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모든 아이들이 말더듬 약함에 속하는 그런 거잖아요. ... 만약에 말더듬이 조금 같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지능도 조금 낮고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도 그러면 말더듬. 거기는 제가 보면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SLP1 253~256).

(정상인 기준이 없어서) 매우 불편했던 적이 있죠.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첫 번째의 목적은 이 사람이 장애인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 첫 번째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인도 그렇지만 아동은 특히요, 일단은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은 뭐 아쉽죠(SLP5 292~294).

한 전문가의 경우에는 임상현장에서 P-FA를 사용하고 있는 언어치료사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염려하는 의견을 직접 표현하기도 하였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진 P-FA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P-FA검사를 사용해서 장애를 선별한다는 생각. 이진 장애를 선별하는 검사가 아니고 중증도를 파악하는 검사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이 검사가 장애를 선별해주지는 못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도구를 잘 못 쓸 수도 있어요(SLP5 89~94).

많은 참여자들은 P-FA에 정상기준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며, 말더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의 검사결과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그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상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점수 이하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건)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굳이 말더듬이다 아니다 하고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때...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유형이 더 많냐 안 많냐, 비정상적인 유형으로 될 가능성이 있냐 아니냐. 그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많으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고... “애가 더듬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게, 그냥 그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 그러니까 좀 오해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진단적인 의미에서 평가를 하기가 당장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SLP3 63~75).

저는 사실 말더듬은 사람한테 말더듬 검사로 쓴 거기 때문에 정상 기준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어린 아동의 경우에도) 유형 갖고 많이 보거든요. 단어 내에서 깨졌다 그건 정상적인 비유창성으로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빈도보다는 유형이 더 결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굳이 정상기준이 없더라도 애가 어떤 유형을 보이고 질적인 어떤 것이 동반됐느냐로 보지 빈도 그거 갖고는 그렇게 크게 나누지 않아요(SLP4 268~275).

#### 나. 보다 심화된 검사로서의 역할 요구

반면에 현재의 분석체계로는 말더듬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말더듬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질적인 측면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ND 점수를 내놓고 그것의 어떤 질적인 측면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요(SLP2 110~111).

부자연스러운 톤이 있거든요, tremor라든지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난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부수행동정도만으로는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런 질적인 특성을 체크할 수 있는 난을 만들었으면... 근데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나?(SLP3 203~205).

P-FA에서는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AD와 ND를 나누는 데에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나누긴 했는데 말더듬 유형에서는 가중치가 없어요. 말더듬은 그냥 말더듬일 뿐이거든요. 더듬는 아이들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 치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긴장이 동반이 되었으면 그게 인상에 박혀서 굉장히 심하다고 느끼고 긴장이 없으면 별로 안 심하게 느끼는데 P-FA에서는 그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니까. P-FA 검사자체가 시간이 흘러가는 차원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나를 본 것이기 때문에, 깊이는 보지 않고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SLP5 129~138).

한편으로 P-FA의 경우 기준에 많이 사용하던 SSI에 비해 비유창성 유형에 대한 차별화를 하고 있

다는 언급도 있었다.

사실 내가 볼 땐 말더듬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서 점수에 가중치를 주고 해서 오히려 이게 나는 가벼운 거랑 나눠주는 의미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SSI나 이런 것 보다는(SLP3 27~28).

#### 다. 과제의 목적과 제작방법 등에 대한 견해 차이

P-FA에 포함된 과제들 간의 목적과 발화 촉진 방법 등에 대한 오해로 인해 문장그림과 말하기그림이 서로 중복되는 과제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으며, 따라 말하기 과제 안에 포함된 단어나 문장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아동은요 문장그림, 말하기그림 하잖아요. 근데 똑 같아요. 친구가 바지를 입어요, 친구가 머리를 빗어요, 똑 같아요. ... 딱 3어조합. 그게 사실은 다르지 않은데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걸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문장그림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SLP4 183~188).

따라말하기에서 아이들한테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참모총장이라던가. 조음이 너무 어려워서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유창성을 보기에는 너무 친숙도가 떨어져서, 조음 때문에, 조음하는 거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걸로 인한 문제인지 유창성 문제인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SLP2 97~101).

#### 4. P-FA를 넘어 말더듬을 만나다!

전문가들이 P-FA를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한 점으로 언급한 내용들에는 지속적으로 말더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유창성의 가변성(variability)으로 인한 평가샘플이나 기준집단의 대표성 문제, 상당한 기간의 훈련과 경험의 필요성, 평가자내 신뢰도와 평가자간 신뢰도 등이 주된 문제였다.

##### 가. 샘플의 대표성 문제

모든 참여자들이 말더듬 평가시에 개인간이나 개인내 변이성이 심하기 때문에 대표성, 전형성을 확신

할 수 있는 샘플을 수집하기가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낯선 성인이잖아요. 낯선 성인과 특정한 시간 내에 어느 때는 사실은 아 또 몇일전에 온 아이는 그날 오전에 유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 그런 유창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사하는 거. 근데 사실상 그걸 통제하는 것도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어디까지 제가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모든 상황을 다 평가할 수도 없고 대표성을 지닌 것을 단시간내에 평가를 해야 할 텐데. 아이들,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어려운 것은 아이들마다 그 말더듬을 보이는 그런 특징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시를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은 아 이걸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는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전혀 아니에요(SLP1 89~99).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성인들 중에는 웬만한 대화에서는 티가 안 나다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에서는 드디어 (말더듬을) 드러내는... 근데 그런 분들은 평가에서 안 걸려요.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억누르고 있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경우, 이럴 때 이걸 다 막힘으로 해야 하나,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막힘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워낙 푹푹한 애들이 많아서 전략적으로 자기 소리를 말더듬지 않게 들리도록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럴 때 막힘으로 표시한다고 보다는 치료사가 받은 인상을 반영하는 게...(SLP3 197~203).

워낙 가변성이 있는 장애니까 사실은 당일 날 평가한 거 갖고 그 사람의 유창성장애를 제가 다 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평가가 그렇게까지 이 분을 대표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유창성장애 평가는 정말로 기간을 두고 몇 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SLP4 82~85).

#### 나. 훈련과 경험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유창성장애가 다른 의사소통장애에 비해 전문적인 영역이며 상당한 양의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고 상당한 스트레스가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

였다.

저는 (말더듬을) 그냥 처음부터 했던 거라,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익숙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거 치료방법이 어떤 거냐 물어보기라도 하면 참 막막할 때가 있죠. 이게 그냥 차려놓은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겠구나 하고, 참 어렵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관심이냐 끌리는 그런 게 없었다면 굉장히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결과나 이런 걸 예측하기가 어렵고 변수가 많고 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초반에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 임상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처음 대하면 말더듬은 조금 어려워하시지 않나 해요(SLP3 120~127).

이제 P-FA의 단점이나 불편한 점은 일단은 해석하는데 있어서 평가를 한 후에 그것을 다시 보고 전사하거나 채점을 할 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웃으면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들이 있구요(SLP6 69~71).

전문가들은 유창성장애 평가시 평가 결과의 평가자내 신뢰도와 평가자간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당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처음에 분석하는 게 힘들고 오래 걸리고 볼 때마다 틀리고... 지금은 평가자내는 좀 그래도 (나아졌는데)... 평가자간은 힘든 것 같아요. 평가자내 신뢰도는 어느 정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SLP4 158~160).

그리고 (부수행동 평가는) 아주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다 부수행동으로 체크해서 아주 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이에요(SLP4 265~266).

전문가들은 말더듬 평가와 치료를 위해서는 공식 검사의 결과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예민하게 많은 것을 관찰하여야 하며 이러한 관찰능력은 숙련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아이의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관찰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비디오를 찍기는 하지만 바로 앞에서 느

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비디오를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앞에서는 느껴지는 긴장감이라든가, 미세한 이러한 느낌 있지요? 그 당시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체크하는 거 그런 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여져야 하는 것 같아요. ... 뭐 물론 움직임 장애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유창성은 특히나 고린 부분이 굉장히 개별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를 잘 잡아서 치료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평가할 때 잘 반영해내는 속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좌우하지 않을까... 실제로 공식검사 쓰는 거는 금방 배우죠, 치료사들이. 그게 질적으로 그 사람, 대상자들의 여러 가지 면들을 전체적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검사도구의 문제가 아니지만, 치료사, 평가자의...(SLP3 176~188).

#### 다. 무엇이 말더듬인가?

전문가들은 비유창성이 말더듬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나타나기 때문에, 말더듬 여부를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비유창성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을 판단 기준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유창하지 않은 순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ND를 P-FA 평가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특히 비유창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정상인도 분명히 많이 비유창할 거란 말이예요. 데이터를 얻고 나면 진짜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정상인과 말더듬을 나누는 게 분명 쉽지는 않을 거예요(SLP5 109~113).

ND 빼도 될 것 같아요. ND도 아주 비정상적인 ND, 예를 들면 간투사를 여러 번 쓴다던지 그럴 경우에만 카운트 하든지요. 오히려 저는 지금은 DP에서 연장, 막힘 같이 있잖아요. 차라리 연장, 막힘, 소리반복, 음절반복 그렇게 나눠놓으면 사람들이 보기도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ND는 아예 빼고(SLP4 242~251).

비유창성이 같이 나왔다 하는 경우에... 둘 다 체크하면 또 너무 오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더 두드리지게 나타나는 거 한 개로 하자니 또 애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고... 그냥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편하게 이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이중으로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괜찮은데 '애가 이렇게 이중으로 나타나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약간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SLP1 233~242).

#### 라. 표준화 검사의 한계

모든 전문가들이 임상현장에서 공식검사와 비공식검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두 가지 검사는 상호보완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준화검사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역동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P-FA에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표현하였다.

두 개(공식검사와 비공식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두 개를 조율해서 봐야하는 것 같아요. 공식검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비공식검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인터뷰를 좀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발화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공식검사에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SLP2 25~30).

성인들도 모든 성인이 그런 건 아니고, 약함에 해당되는 성인 중에, 이렇게 평소에 말했을 때 심한 경우 인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P-FA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어떤 그런 자신의 말 상태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보여주게 하거나 찍어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이고 모두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배려하는 또 도구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가능할진 잘 모르겠어요(SLP6 146~147).

학생들 하는 거 보면 형식적인 건 맞춰서 와요. 근데 대상자의 다른 면은 보지 못했다는 게 확연히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검사자가 보지 못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검사자를 육할 수가 없죠. 그런 걸 반영해줄 수 있도록 검사도구가 이끌어 주었으면. 너무 많은 걸 바라나? 유창성이란 게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표시가 안 되면 다이나믹한 부분이 떨어지니까 뭐 그게 공식검사도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SLP3 207~211).

### 마. 핸디캡 파악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더듬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더듬 당사자가 말더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가’라고 강조하였다. 비유창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심리적인 인식이나 어려움이 말더듬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유창성 문제가 있어도 본인은 말더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됐어요. 굳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너 말더듬이다” 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어. 반면에 정도가 아주 약해도 본인이 그걸 괴로워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도와줘야 하는 거고 정상인하고 비교할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죠(SLP3 388~400).

그러나 현실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심리적인 측면이나 핸디캡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현재 개발되어 있는 여러 의사소통태도 검사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하였다.

일단은 이 장애가, 이 사람이 이 시점에서 왜 평가를 받으러 왔는지 그 이유를 일단 중요하게 봐야할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다급한지,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방해를 받고 있는지, 이 사람의 전반적인 인생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같이 다 고려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언어발달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점수로 아 이 사람은 어느 수준이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더듬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객관적으로 체크되지 않는 면들, 심리적인 면들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고려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또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P-FA에서 의사소통태도를 체크해서 의사소통태도 점수라는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SLP2 46~54).

제일 궁극적으로 보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가 얼마나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는가. 그렇기 때문에 더듬는 말도 봐야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그 순간에 얼마나 방해를 받게 되는가 그걸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듬는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인 것,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얼마나 어려움을 받는가 방해를 받는가 그런 거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할 것 같아요. 말더듬의 빈도를 계산하고 말더듬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그냥 책보면서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면들을 측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의사소통태도 이런 거요. 특히 꼬마애들 같은 경우에는 말더듬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태도는 정말 중요한데, 발달기에 있어서 말더듬을 말더듬이 아닌 걸로 변화시켜주는 데에 결정적인 key인 것 같은데, 정작 그 시기에 의사소통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어른들은 또 그 보이지 않는 면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더듬어 와서 너무 단단해져서, 너무 구조화되어서, 그냥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어디서부터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걸 내가 파악할 수 있는들, 방법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어렵죠(SLP5 155~170).

## IV. 논의 및 결론

P-FA에 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창성장애 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된 검사도구인 P-FA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검사실시시간이 단축되고 검사가 편리해졌으며, 유창성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용이해졌고, 유창성 외의 관련 영역의 능력을 함께 살펴볼 수 있고, 공식검사가 발표됨으로써 이전에 비해 유창성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P-FA가 보다 타당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검사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수정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장애의 전반적 중증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점 및 해석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고, 연령에 따라 과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유창성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보다 타당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 분석 및 채점 방법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검사의 결과와 검사자의 전반적인 판단 간 불일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셋째, P-FA가 연구나 임

상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P-FA의 개발목적과 과제 및 문항을 선정한 이유가 사용자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검사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P-FA에 대해 선별검사로서의 역할과 심화검사로서의 역할을 모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과제에서 목적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발화 수집 방법이나 발화 수집시 치료사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유창성장애 평가와 진단과정에서 P-FA와 같은 공식검사가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비공식 검사를 병행하고 예민한 관찰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창성장애의 평가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자 스스로의 훈련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P-FA 개정 시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특히 두 번째 주제인 'P-FA에게 바라다'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표본의 크기 제한과 부수행동 기준에 대한 점은 P-FA 출판 이후 현재까지 개발자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샘플 추가 작업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밖의 채점과 해석 방법, 과제와 자료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사항들은 더욱 포괄적인 설문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수정 여부와 구체적인 보완점들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상의 보완점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참여자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유창성장애의 평가 이후 분석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 기록과 점수 산출과정 등을 자동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는 것 등은 실제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표준화된 검사도구인 P-FA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보완점을 가능한 수정하여 유창성장애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도구를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검사자 스스로가 유창성장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표준화된 검사만을 절대적으로 맹신할 경우를 염려하기도 하였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P-FA를 먼저 사용한 사람들은

점수화에만 딱 집중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유형이 어떤 의미일까, 그 유형에서 이 점수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점수만 내버리는... 그 상황에서도 경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그 사람 안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융통성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듯한 느낌... (SSI가) 너무 취약한 검사도구였기 때문에 검사자가 좀더 involve 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근데 P-FA는 조금 차려놓은 밥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SLP3 264~270).

ShIPLEY & McAfee (2004)에 따르면, 표준화 검사의 장점은 객관적이고 실시하기 쉬우며 다른 전문가들과 결과를 공유하기 쉽고, 임상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실시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표준화 검사는 대상자마다의 개별화된 적용이 어렵고, 실생활을 대표하기 어려우며, 문제에 관련된 요인을 배제하기 쉬우며, 실시하기 부적절한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검사지침대로 실시되어야만 결과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표준화검사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표준화검사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비공식 검사를 병행해야 대상자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도구의 개발목적과 과정, 실시지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도 검사도구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지침을 쉽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여러 참여자들이 SSI를 유창성장애 검사도구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였으며 P-FA를 SSI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는데, SSI-3 (Riley, 1994)의 경우 현재 말더듬 검사도구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 및 치료를 위해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Manning, 2001). 그러나 Kelly (1995)에 따르면, SSI-3에 따라 산출한 전문가 10명의 점수의 범위가 매우 넓었고 실제 대상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심현섭·이은주(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SSI-3의 검사지침서를 살펴보면 말더듬 빈도점수와 말더듬지속시간 점수, 부수행동 점수의 배분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밝히지 않고, 기준 마련에 참여한 피험자들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표준화 과정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심현섭 · 이은주, 2002; Healey, 1991; Lewis, 1995; Mowrer, 199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표준화과정을 거친 검사도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개발과정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평가가 없이 사용해온 검사도구가 많았다.

검사도구가 개발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검사도구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개발자와 사용자의 상호소통을 통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며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 나은 검사도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자는 적극적으로 검사도구의 개발과정과 근거, 사용방법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며, 검사도구에 포함된 지침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사용자와 소통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검사도구 워크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검사지침서를 자세히 읽음으로써 개발자와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P-FA의 개정과정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사용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고려하여 연령에 따라 과제와 검사해석방법 그리고 기준을 보완하여 유창성장애 아동과 성인의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영천 · 김진희(2008). 『질적연구방법론 II』.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 박종원(2004). 학생들은 언제 말문을 여는가?: 원어민 교사 수업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16, 209-245.
- 심현섭 · 이은주(2002). SSI-3 하위영역들에 관한 평가자 간 일치율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7(1), 130-154.
- 심현섭 · 신문자 · 이은주(2002). 『유창성장애 검사도구의 표준화 연구 중간보고서』. 서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 심현섭 · 신문자 ·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 Campbell, J., & Hill, D. G. (1993). Systematic disfluency analysis. In Northwestern University & the Stuttering Foundation of America (Eds.), *Stuttering therapy: Workshop for specialists*.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 Carignan, M., Rousseau, J., Gresset, J., & Couturier, J. (2008). Content validity of a home-based person-environment interaction assessment tool for visually impaired adult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45, 1037-1051.
- Gilgun, J. F. (2004). Qualitative methods and the development of clinical assessment tool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4, 1009-1019.
- Healey, E. C. (1991). Assessment review: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 (revised).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6, 301-309.
- Kelly, E. M. (1995). Parents as partners: Including mothers and fathers in the treatment of children who stutter.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8, 93-105.
- Kvale, S. (1994). Ten standard objections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s.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5, 147-173.
- Lewis, K. E. (1995). Do SSI-3 scores adequately reflect observations of stuttering behavior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4, 46-59.
- Manning, W. H. (2001). *Clinical decision making in fluency disorders* (2nd ed.). San Diego, CA: Singular Publishing Group.
- Mowrer, D. (1991). Assessment review: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 (revised).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6, 311-314.
- O'Brian, S., Packman, A., & Onslow, M. (2004). Self rating of stuttering severity as a clinical tool.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3, 219-226.
- O'Brian, S., Packman, A., Onslow, M., & O'Brian, N. (2004). Measurement of stuttering in adults: Comparison of stuttering rate and severity scaling method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1081-1087.
- Riley, G. (1994).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 (3rd ed.). Austin, TX: Pro-ed.
- Rousseau, I., Onslow, M., Packman, A., & Jones, M. (2008). Comparison of audio and audiovisual measures of stuttering frequency and severity in preschool-age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7, 173-178.
- Shipley, K. G., & McAfee, J. G. (2004). *Assessment in Speech-Language Pathology*. New York: Thomson Delmar Learning.
- Tetnowski, J. A., & Damico, J. S. (2001). A demonstration of the advantages of qualitative methodologies in stuttering research.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6, 17-42.
- Zebrowski, P. M., & Kelly, E. M. (2002). *Manual of Stuttering Intervention*. San Diego, CA: Singular Publishing Group.

ABSTRACT

##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Ji-Wan Ha<sup>a</sup> · Eunju Lee<sup>b,§</sup>

<sup>a</sup>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sup>b</sup>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Correspondence to

Prof. Eunju Lee, PhD,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126 Jukjeon-dong,  
Suji-gu, Yongin-si,  
Gyeonggi-do, Korea  
e-mail: slplee@dankook.ac.kr  
tel.: + 82 31 8005 3818

**Background & Objectives:** The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is a norm-referenced fluency assessment tool that can be used for both clinical and research purpos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stimates, suggestions and requests provided by specialized users regarding P-FA. **Method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speech-language pathologists who specialize in stuttering. All interviews were audio-taped and transcribed. The transcripts were analyzed by the qualitative method using Nvivo 2 (2002). **Results:** Four main themes emerged from the qualitative analysis: (1) advantages of P-FA, (2) suggestions about P-FA, (3) disagreement between developers and users of P-FA, and (4) issues of stuttering beyond P-FA. Advantages of and suggestions about P-FA mean users'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with P-FA, respectively. From disagreement between developers and users, we concluded that P-FA developers' intentions were not effectively delivered to the users. Issues of stuttering itself were also raised in all interview processes.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used to improve and to implement the P-FA as a fluency assessment tool in a more effective manne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9;14;363-379)

**Key Words:**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qualitative study, NVivo

## REFERENCES

- Campbell, J., & Hill, D. G. (1993). Systematic disfluency analysis. In Northwestern University & the Stuttering Foundation of America (Eds.), *Stuttering therapy: Workshop for specialists*.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 Carignan, M., Rousseau, J., Gresset, J., & Couturier, J. (2008). Content validity of a home-based person-environment interaction assessment tool for visually impaired adult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45, 1037-1051.
- Gilgun, J. F. (2004). Qualitative methods and the development of clinical assessment tool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4, 1009-1019.
- Healey, E. C. (1991). Assessment review: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 (revised).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6, 301-309.
- Kelly, E. M. (1995). Parents as partners: Including mothers and fathers in the treatment of children who stutter.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8, 93-105.
- Kim, Y. C., & Kim, J. H. (2008). *Software and qualitative analysis*. Seoul: Academy Press.
- Kvale, S. (1994). Ten standard objections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s.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25, 147-173.
- Lewis, K. E. (1995). Do SSI-3 scores adequately reflect observations of stuttering behavior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4, 46-59.
- Manning, W. H. (2001). *Clinical decision making in fluency disorders* (2nd ed.). San Diego, CA: Singular Publishing Group.
- Mowrer, D. (1991). Assessment review: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 (revised).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16, 311-314.
- O'Brian, S., Packman, A., & Onslow, M. (2004). Self rating of stuttering severity as a clinical tool.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3, 219-226.
- O'Brian, S., Packman, A., Onslow, M., & O'Brian, N. (2004). Measurement of stuttering in adults: Com-

■ Received July 20, 2009 ■ Final revision received August 17, 2009 ■ Accepted August 19, 2009.

© 2009 The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http://www.kasa1986.or.kr>



- parison of stuttering rate and severity scaling method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1081-1087.
- Park, C. W. (2004). When are Korean students ready to talk? *English Language Teaching*, 16, 209-245.
- Riley, G. (1994).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 (3rd ed.). Austin, TX: Pro-ed.
- Rousseau, I., Onslow, M., Packman, A., & Jones, M. (2008). Comparison of audio and audiovisual measures of stuttering frequency and severity in preschool-age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17, 173-178.
- Shipley, K. G., & McAfee, J. G. (2004). *Assessment in Speech-Language Pathology*. New York: Thomson Delmar Learning.
- Sim, H. S., & Lee, E. J. (2002). An interjudge reliability study on the subtypes of SSI-3.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7(1), 130-154.
- Sim, H. S., Shin, M. J., & Lee, E. J. (2002). *Midterm report for standardization of Paradise-Fluency Assessment*. Seoul: Paradise Welfare Foundation.
- Sim, H. S., Shin, M. J., & Lee, E. J. (2004). *Paradise-Fluency Assessment*. Seoul: Paradise Welfare Foundation.
- Tetnowski, J. A., & Damico, J. S. (2001). A demonstration of the advantages of qualitative methodologies in stuttering research.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6, 17-42.
- Zebrowski, P. M., & Kelly, E. M. (2002). *Manual of Stuttering Intervention*. San Diego, CA: Singular Publishing Group.